한국민속무용의 육성책
(韓國民俗舞踊의 育成策)

趙　　東　　華

차례

1. 모호(模糊)한「줌원형(줌原型)」의 규준(規準)
2. 민속무용(民俗舞踊)의 자기발견(自己發見)
3. 무용연구소(舞踊硏究所) 보조금(補助金)
4. 상설심의기관(常設審議機關)
5. 사회인식 빈곤(社會認識 貧困)

◉ 모호(模糊)한 「춤원형(춤原型)」의 규준(規準)

춤은 눈으로 전승(傳承)되는 예술(藝術)입니다. 다른 예술은 문헌(文獻)이나 해설(解說)로 이루어질 수 있어도 춤만은 직접 보매 익히지 않고는 될 수 없는데 그 특성(特性)이 있읍니다.

말하자면 생명에서 생명으로 직접 연결(連結)되는 예술(藝術), 이것이 춤의 특징이라는 말　　입니다.

때문에 춤처럼 생명의 서열(序列)이 존중(尊重)되는 예술(藝術)은 또 없습니다. 선생(先生)　이 존명(存命)하는 한(限) 제자(弟子) 춤보다 우위성(優位性)이 인정(認定)받게 마련이며 관객(觀客)은 또 항상 죽은 선생(先生)의 춤을 영화(英化)하고 우상화(偶像化)하게 마련입니다.

대개 춤의 명인(名人)은 생존시(生存時)가 아니고 사후(死後)가 더 화려(華麗)하게 되는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춤의 이것은 동서양(東西洋)의 공통(共通)이고 고금(古今)의 상례(常例)입니다.

이제 나는 「한국민속무용(韓國民俗舞踊)의 육성책(育成策)」이라는 과제(課題)를 받고 한 참 이상(以上)의 사실(事實)에 대하여 오늘의 현실(現實)을 음미(吟味)하여 보았습니다.

우리는 필경 보호(保護)할 민속무용(民俗舞踊)을 「옛날의 춤」에 고정(固定)시키고 그 화석적(化石的)춤의 권위(權威)(?) 그것을 절대적(絶對的) 원형(原型)으로 생각하여 그 수정(修正)을 용사(容赦)않으려 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이런 것은 현실적(現實的)으로 부당(不當)한 일이며 그 의의(意義)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대현존자(當代現存者)의 춤의 실력(實力) 이 곧 춤 역사적(歷史的) 누적(累積)의 총화(總和)가 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춤역사(歷史)에는 개인(個人)의 천재(天才)가 크게 작용(作用)되게 마

련이며 실제로 한사람의 천재(天才)가 춤의 역사(歷史)를 바꿔 왔었습니다. 이런 의미(意味)에서 상고취미적(尙古趣味的)인 민속무용관(民俗舞踊觀)이란 얼마나 모호(模糊)한 추상론(抽象論)인가 하는것 생각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의 민속무용(民俗舞踊)은 지극히 합당(合當)한 것이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오늘의 현행(現行) 민속무용(民俗舞踊) 속에서 「고전적(古典的)」인 것을 찾기를 희망(希望)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방(地方)의 토속적(土俗的)인 춤의「룰」, 즉 염속(染俗)되지 않은 이런 것을 동정(同情)하는 나머지 소위 현대화(現代化)란 이름의 무대무용(舞臺舞踊)속에 깃들어있는 우리춤의 원형(原型)을 무시(無視)하는 것을 반대(反對)합니다.

고대형식(古代形式)의 민속무용(民俗舞踊) 보호(保護)가 아니라 적극적(積極的)인 의미(意味)에서의 우리 춤의 육성(育成)을 바라고 싶습니다. 춤은 살아있는 「원시(原始)」이기 때문입니다.

◉ 민속무용(民俗舞踊)의 자기발견(自己發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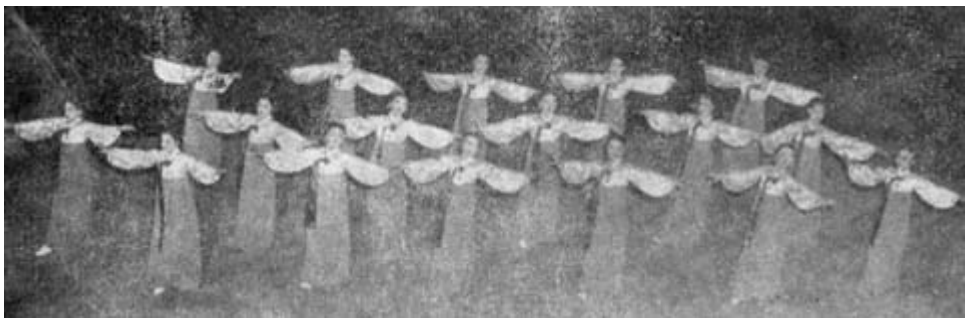
한국(韓國)의 민속무용(民俗舞踊)이 처음으로 자기(自己)를 의식(意識)하게 된 것은 「신무용(新舞踊)」이란 이름의 서구무용(西歐舞踊)이 도입(導入)된 이래(以來)의 일입니다.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약(約) 40年 전(前) 그러니까 그때 신무용(新舞踊)에 가담(加擔)했던 초기(初期)의 무용인(舞踊人)들이 서구무용(西歐舞踊)을 배워서 무대(舞臺)의 효과(効果)를 체험(體驗)하면서 필연적(必然的)으로 눈뜨게된 한국인(韓國人) 자기자신(自己自身)의 발견(發見)같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서구(西歐) 춤에대한 한국 춤의 비교안(比較眼)이 생겼던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자신(自身)의 몸집들이 서구무용(西歐舞踊)에 적합(適合)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설혹 적합(適合)했다 손치더라도 전통(傳統)있는 그쪽 예술(藝術)앞에 새로운 활로(活路)가 개척(開拓)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사실(事實)을 깨닷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때도 원각사(圓覺社)나 하다 못해 박람회(博覽會)의 신설무대(新設舞臺)같은 데서 기생(妓生)들의 손으로 민속무용(民俗舞踊)이 행(行)하여졌었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민속무용(民俗舞踊) 자체(自體)의 자의식발견(自意識發見) 이전(以前)의 「놀이」에 불과(不過)한 것이고 전래(傳來)의 소박(素朴)한 기교(技巧)의 전례(展例)에 끄치는 것이 었습니다.그러나, 신무용(新舞踊) 이후(以後)의 민속무용(民俗舞踊)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즉 「우리무용(舞踊)의 현대화(現代化)」란 뚜렷한 구호(口呼)가 마련 되었으며 초기인(初期人)들은 실제(實際)로 그 작업에 나섰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들의 「현대화(現代化)」는 그 방법론(方法論)으로나 실질적 행동(實質的 行動)에 있어서 오늘의 병적(病的)인 화근(禍根)이 되어 우리춤 고유(固有)의 아름다움과 철학(哲學)을 혼돈상태(混沌狀態)에 빠뜨리긴 하였으나 여하튼 춤이 하나의 지향성(志向性)을 가지고 출발(出發)하게 이른 것은 사실(事實)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잠깐 비쳤듯이 이것이 오늘 현시점(現時點)에서 보면 그때 그 무방법론적(無方法論的)인 시도(試圖)는 우리 춤의 현대화(現代化)에 오히려 마이너스를 가져 왔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춤의 외형(外形)만을 추구(追求)하였고 서양(西洋) 춤 표현방법(表現方法)을빌린 정도의 것이지 내면기(內面技)는 거의 무시(無視)했었던 것입니다. 향취(香趣)를 잃어버린 한국 춤. 한마디로 한국 춤 의 현대화(現代化)는 처음부터 이그러진 상태로 출발(出發)했었던 것이 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을 가지고 초기인(初期人)들을 몰아 세우기에는 너무나도 잔인(殘忍)합

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우리춤을 알으켜 주었고 우리 춤이 예술(藝術)로서 범주(範疇)속에 들어 있음을 선언(宣言)하였으며 그리고 천시(賤視)받던 예인(藝人)을 일약 신문화(一躍 新文化)의 선구자(先驅者)란 높은 위치(位置)로 끌어 올린 공(功)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후일(後日) 이길의 후배(後輩)에게 용기(勇氣)의 길을 마련 하였던 것입니다.



현대형식(現代形式)

이제 우리 춤에 있어서 필요(必要)한 것은 체계화(體系化)된 교본(敎本)을 갖는 일입니다아직껏 우리춤은 하나의 사무용(私舞踊)들에 불과(不過)합니다. 모두가 제마다 눈으로 습득(習得)한 것들에 이쪽 저쪽의 기교(技巧)에 적당(適當)한 자기(自己) 취미(趣味)를 보탠 그런 춤들입니다. 이것으로는 우리 춤의 미학(美學)을 확립(確立)할 수가 없습니다. 표준확립(標準確立)이 안된다는 것은 그 진전(進展)의 척도(尺度)도 잴 수 없다는 말이됩니다. 더욱이 이 일은 집단적(集團的)인 훈련(訓練)이 필요(必要)한 학교무용(學校舞踊)의 경우에 더욱 심각(深刻)합니다. 혹 서울의 경우면 그것대로 공연(公演) 때나 하다 못해 몇몇 개인무용연구소(個人舞踊硏究所)의 비교(比較)로 위안(慰安) 받을 수 있겠지만 지방(地方)의 경우면 말이 아닙니다. 때문에 이 교본(敎本) 문제(問題)는 하루속히 우리춤 교본위원회(敎本委員會) 같은 전문위(專問委)가 구성(構成)되어 잡다(雜多)한 춤을 추려 내어 체계(體系)있는 교본(敎本)을 작성(作成)하는 일이 시급(時急)합니다. 또 보다 이상적(理想的)인 것을 말하려면 무용(舞踊)의 판권제도(版權制度) 같은것도 있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우리 춤 「발레」의 경우처럼 무용보가 없으니까 안무권(按舞權)으로서 자기(自己)의 창작(創作)이 보호(保護)받을 근거(根據)가 희박(稀薄)합니다만 「필림」같은 것으로서라도 자기(自己) 춤의 권익(權益)을 법(法)으로서 보호(保護)받을 수 있는 제도(制度)가 마련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현(現) 우리 무용계(舞踊界)는 몰염치(沒廉恥)한 모방(模倣)과 표절과 위장(僞裝)이 성행(盛行)되며 이것을 감(敢)히 막아낼 방법(方法)은 거의 없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무질서(無秩序)는 무용(舞踊)의 항상(恒常)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이길에 종사(從事)하는 인사(人士)의 사기(士氣)를 떨어트리고 나아가서 무용예술(舞踊藝術)의 고도화(高度化)는 더욱 기대 할 수 없게 됩니다.

궁중무(宮中舞)

◉ 무용연구소 보조금(舞踊硏究所 補助金)

아시다시피 한국(韓國)의 오늘의 상황(狀況)으로서는 무용(舞踊)에 일생(一生)을 받친 인사(人士)의 경우도 살아나갈 길이 아주 막연한 상태입니다. 살아가기 힘든 길에 일생(一生)을 바치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치인(痴人)이거나 광인(狂人)입니다. 물론 예술(藝術)은 돈이나 생활(生活)을 바라고 하는 작업(作業)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현황(現況)으로는 우리춤의 장래(將來)는 그리 순탄할 수는 없습니다. 곧 이길의 좋은 소양(素養)의 후배(後輩)나 천재(天才)를 유인(誘引)해 드리기 힘들단 말도 됩니다.

지금까지 무용(舞踊)에 참여한 젊은이의 경우를 보면 무용(舞踊) 5.6年하고 나이(연령(年令))가 차면 자기(自己)의 행위(行爲)의 환멸(幻滅)을 느끼는지 이것을 포기(抛棄)하는 것이 보통이며 끝까지 해나온 사람은 거의 「나이트.클럽」이나 존경(尊敬)받지 못하는 「쑈」의 멤버로서 생계(生計)를 유지(維持)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선 후배(後輩)에게 이길을 택하라고 권유(勸誘)할 용기(勇氣)를 갖지 못하는 이유(理由)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국악원(國樂院)이라는 좋은 기관(機關)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기능(機能)을 강화(强化)하면 무용진흥(舞踊振興)에 좋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야 여기에는 예산문제(豫算問題)가 따르며 이것은 또 나라의 부강문제(富强問題)와도 연결됩니다만 우선 개인무용연구소(個人舞踊硏究所)에 보조비(補助費)를 지급(支給)해 주는 일을 생각해 봅니다.

사실 따지면 무용진흥(舞踊振興)을 위해서 국가기관(國家機關)에서 해주는 일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음악(音樂)은 그래도 두 개의 교향악단(交響樂團)이 있으며 미술(美術)이나 연극(演劇)도 국전(國展)이니 국립극장(國立劇場)같은 것으로 충족(充足)치는 못한대로 혜택(惠澤)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용(舞踊)은 어느 하나도 그런 것이 없이 개인(個人)의 손으로만 영위(營爲)되어 있습니다. 내버려 두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무거운 부담(負擔)까지 업고 있는 형편입니다.

개인연구소(個人硏究所)를 차리자면 소위 학원설치규준(學院設置規準)인가 그런 것이 있어서 일정(一定)한 적금(積金)이 있어야 하며 또 세금(稅金)도 내야 합니다. 연구발표(硏究
發表)의 경우도 다른 흥행(興行)과 마찬가지로 세금(稅金)을 내게 마련입니다. 나라에서 이런 것은 충분(充分)히 봐줄 수 있는 일로 생각됩니다.

언제 한때 정부(政府)는 영화육성책(映畵育成策)으로 세금(稅金)을 부과(賦課)하지 않

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映畵)처럼 수지(收支)맞을 염도 내보지 못하는 무용(舞踊)에 이런 혜택(惠澤)마저 받지 못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얘기는 처음으로 돌아가 유망주(有望株)의 몇 무용연구소(舞踊硏究所)를 골라 국가보조금(國家補助金)을 지급(支給)하며 교사(敎師)나 필요(必要)한 공보원(公報員)에 부담(負擔)없이 이 곳을 이용(利用)시킬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이러면 곧 일석이조(一石二鳥)의 이(利)를 얻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발표회(發表會)(공연(公演))경우도 이 예(例)를 적용(適用)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정도(程度)의 일이면 정부(政府)가 행사(行事)로 하는 경연대회(競演大會)나 연예제전(演藝祭典) 같은 염출비용(捻出費用)에 조금 더 보태면 충분(充分)히 가능(可能)할 수 있다고 봅니다.아니 이 일은 보다 적극적(積極的)인 방향(方向)으로, 국가(國家) 예산(豫算)으로서 의당 책정(策定)되어야 할 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근래(近來)에 정식(正式) 용무학과(踊舞學科)들이 여러 대학(大學)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배출(輩出)된 많은 무용도(舞踊徒)의 장래문제(將來問題)도 심각(深刻)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직 학교무용(學校舞踊)은 체육과소속(體育課所屬)으로 그 장학관(奬學官)에 의하여 관장(管掌)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용(舞踊)을 도수체조(徒手體操)의 연파식 교육과정(軟派式敎育課程)으로 밖에 인식(認識) 형(兄)하고 있다면 안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 상설 심의기관(常設 審議機關)

몇해 전의 일입니다만 문교부(文敎部)에선가 아무튼 그런 권위기관(權威機關)에서 소위 보존(保存)할 가치(價値)가 있는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로서 「학무(鶴舞)」도 지목(指目)되어 있었던 신문기사(新聞記事)를 읽은 일이 있읍니다. 물론 이 결정(決定)이 그 후 어떻게 진전(進展)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그 당시 느꼈던 허망(虛妄)한 생각은 아직도 쉽사리 가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필자(筆者)가 거기에 반문(反問)할 기회(機會)가 있었다면 뭐라고, 답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상상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대체「학무(鶴舞)」란 어떤 형태(形態)의 춤이며 그 창안자(創案者)가 누구입니까?」「그리고 그 춤의 가치(價値) 있는 부분(部分)은 어떤 것이며 그것을 감식(鑑識)해낸 분은 누구입니까」「또 내춤이 전통적(傳統的)인 학춤이라고 주장하는 분은 누구며 그것을 옳다고 하는 분은 또 누구입니까」

이상(以上)의 답(答)을 할분은 누구도 없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학춤의 선생(先生)은 사람이 아니고 곧 살아있는 「학(鶴)」이기 때문입니다. 양악(洋樂)에 「카덴자」 Kadenza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주자(演奏者)가 협주곡(協奏曲) 같은데서 악보(樂譜)에 의하지 않고 자기 기량(技倆)껏 과시연주(誇示演奏)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자(舞者)의 능난한 춤재주와 태(態)가 더 중요시(視) 되는 「학춤」은 마치 양악(洋樂)의 카덴자의 경우를 연상(聯想)시킵니다. 학(鶴)이 한국동물(韓國動物)만이 아니 듯이 어떤 의미에서 이춤 처럼 한국적(韓國的)이 아닌 춤도 드뭅니다. 그렇다고 나는 여기서 「학춤」의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로서의 적부적(適不適)을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앞서 난는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로서 무용(舞踊)을 품목별(品目別)로 선정(選定)하는 방법(方法)

에 이의(異義)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춤은 어느 한 항목(項目)만의 보존(保存)은 불가능(不可能)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도 또 있습니다. 소위 문화사절단(文化使節團)이라는 이름의 해외행(海外行) 흥행단체(興行團體), 결정적(決定的)인 인상(印象)을 좌우(左右)하는 해외공연(海外公演)인데 파견당국(派遣當局)이 이런 「레파토리」며 격조(格調)에 거의 무관심(無關心)한 태도(態度)로 임(臨)하고 있는 것이 암만해도 이해(理解)할 수가 없습니다. 수출제품(輸出製品)이 아니니까, 규격(規格)된 평가(評價)를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필요(必要)합니다. 즉 당국(當局)은 이런 경우에를 대비(對備)하여 상설적(常設的)인 심의기구(審議機構)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일정(一定)한 서류양식(書類樣式)만 갖추면 그것이 규격이하(規格以下)의 물건(物件)이건 국보(國寶)건 간에 적당(適當)히 해칠 수 있다면 진정(眞正) 좋게 인식(認識)시켜야 될 앞으로의 우리 예술(藝術)에 잘못된 선입감(先入感)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서류(書類)로서 치뤄야 할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악덕흥행가(惡德興行家)들의 좋은 이용물(利用物)밖에 안될 것입니다.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심의기구(審議機構)가 없이는 필경 어린아이들까지 동원(動員)하는 따위의 사절단(使節團)이 생기지 않으리라고 누가 보장(保障)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과거(過去) 이런 이름의 단원(團員)속에는 어린아이들이 낀 일들이 허다(許多)하였습니다. 언젠가 대만(臺灣)에서인가 어떤 유치(幼稚)한 무용단(舞踊團) 일행(一行)에 어린아이들이 껴묻어와서 재롱을 부린 일이 있었읍니다만 그때 인상(印象)으로 그저 민망스럽기만 한 미개민족(未開民族)의 놀음같이 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을 기억(記憶)합니다. 심의기구(審議機構)가 없으면 우리의 경우도 이러한 경멸(輕蔑)의 대상(對象)이 되질 것이 분명(分明)합니다. 또 이런 것의 엄격(嚴格)한 제재(制裁)는 진정한 예술인(藝術人)에 대한 사기앙양(士氣昻揚)이 될 것입니다.

몇해 전 우리 무용단(舞踊團)이 파리(巴里)로 갔을 때 그리고 일본(日本)에 갔던 어떤 사절단(使節團)이라는 이름의 단체공연(團體公演)에 그곳 우리 교포(僑胞)에게서 분격(憤激)의 편지를 받던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꼭 그런 광경(光景)을 당한 교포(僑胞)의 얘기가 아니더라도 능히 짐작이 가는 일입니다. 예술(藝術)의 평가(評價)는 동서(東西)가 다를수 없고 지역(地域)에 따라 다를수 없다는 말입니다. 관리(官吏)들의 선심사무(善心事務)나. 정치가(政治家)들의 무견식(無見識)한 자기취미(自己趣味)나 뜻하지 않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허기야 심의구성(審議構成)이 있어도「학춤」과 같이 무견식(無見識)이 발동(發動)되면 오히려 없음만 못한 경우도 얼마던지 있겠지요. 말하자면 그 구성원(構成員)의 성분여하(成分 如何)로 실력자(實力者)의 출세(出世)를 막으며 거꾸로 악(惡)의 가지(지(枝))를 무성(茂盛)케 할 우려도 없지가 않은 것입니다. 협회(協會)란 이름으로, 심사위(審査委)란 이름으로의 횡포(橫暴)가 오늘에도 얼마던지 행사되고 있는 형편이니까 말입니다. 말하자면 제도(制度)보다 운영묘(運營妙)라고 할 수 있겠지요.

◉ 사회인식빈곤(社會認識貧困)

이상(以上) 우리춤의 육성(育成)에 관여(關與)할 수 있는 여러 조건(條件)의 현황(現況)을 나열(羅列)하여 보았습니다. 결론(結論)으로 몇가지 문제(問題), 예컨대 돈이나,

제도 문제(制度 問題)로 압축(壓縮)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해결(解決)도지 않는 일들이 얼마던지 있습니다. 그 첫째로 사회(社會)의 인식빈곤(認識貧困)을 들 수 있습니다. 인식(認識)의 빈곤(貧困)이 곧 문화정책 빈곤(文化政策 貧困)으로 나타나게 마련입니다만 춤이 고대희랍(古代希臘)의 의무교육(義務敎育)으로 등장(登場)한 이래(以來) 인간(人間)의 문화역사(文化歷史)에 무용(舞踊)이 점(占)하는 위치(位置)는 컸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의 상고시대(上古時代)에는 춤이 고귀(高貴)한 분들의 「예(禮)」였었습니다. 그러나 흥망성쇠(興亡盛衰)의 물결속에 이런 족벌(族閥)들이 모두 없어지면서 언제나 춤은 낮은 계급(階級)의 것으로 수락(隋落)하여 버렸던 것입니다.

부채춤

여하튼 근대(近代)에 이르러 뜻있는 인사(人士)들로부터 잃어버린 춤을 되찾자는 부르짖음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1927年 8月 13日字 동아일보(東亞日報)에 김동환(金東煥)이라는 「조선무용진흥론(朝

鮮舞踊振興論」에는 이런 구절(句節)이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의식(意識)을 가지고 새로히 대중적 현실(大衆的 現實)의 무용(舞踊)을 창조(創造) 진흥(振興)시켜야 할 것을 느낀다. 어찌 생각하면 급박(急迫)한 조선현실(朝鮮現實)」에 있어 무용(舞踊)을 통(通)한 예술운동(藝術運動)을 이르킨다함은 완만(緩慢)하다 하여 비난(非難)할지는 알 수 없으나 반드시 그렇지않으니 잘만 운용(運用)하면 사회민중(社會民衆)의 의기(意氣)를 고무(鼓舞)하는데 절대(絶大)한 효과(效果)가 있을것이다…(후략(後略))」

전문(全文)에 별로 뚜렷한 방법론(方法論)을 제시(提示)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여하튼 춤의 사회참여(社會參與)에의 기여(寄與)가 강조(强調)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한 바지만 나는 우리 민속무용(民俗舞踊)의 박물관적 가치(博物館的 價値)와 그 고대형식 전승(古代形式 傳承)같은 것은 극한(極限)된 한곳 정도(程度)에서 멈추고 보다 큰 의미(意味)의 우리춤의 진흥책(振興策)을 강구(講求)하고 싶습니다.

이상(理想)같으면 해외국비유학생(海外國費留學生)으로도 무용학도(舞踊學徒)를 끼워줬으면 하는 것과 국립대학(國立大學)의 무용학과설치(舞踊學科設置) 같은 것 등(等)도 바라고 싶습니다. 또 신문사(新聞社)같은데 특별(特別)히 배정(配定)하는 문화비(文化費)같은 것이 있어서 매해 몇 개씩의 유명(有名)한 해외 무용단(海外 舞踊團)을 유치(誘致)함으로서 무용인구(舞踊人口)를 늘려주는 것도 진정(眞正)한 의미(意味)의 춤 육성(育成)에 기초작업(基礎作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자 동아방송제작과장(筆者 東亞放送製作課長)>